

“시정 끝까지 잘 마무리하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임실군, 친환경적·난방비 절약 효과... 내년 1월 8일까지 접수

임실군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2021년 1월 8일까지 받는다.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적이고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총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35대(일반 20대, 저소득층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정은 1대당 20만원, 저소득층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대당 6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포함)하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택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세입자도 가능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수질생태팀(063-640-29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시정소통의 날서 수해 피해 지원 다각화·방역수칙 준수 등 주문

이환주 남원시장은 28일 '시정소통의 날'에서 23개 읍면동장들에게 2020 시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자고 주문하면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함께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시는 역대급 수해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말 그대로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보냈는데, 큰 차질 없이 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고가 컸기 때문"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다 시정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해 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언급, "북구 예산이 최근부터 집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방직 준설 등 시급히 복구해야 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라"고 지시하며, "지원방식도 가능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제도권 틀에 매이지 말고,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각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서인 보건소와 안전재단과에만 의존할 것



이환주 남원시장은 28일 '시정소통의 날'에서 23개 읍면동장들에게 2020 시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자고 주문하면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함께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아니라, 23개 읍면동에서도 특별히 함께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 및 5인 이상 소모임 자제 등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에서 각종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들이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부서장을 비롯해, 읍면동

장님께서 기강확립에도 다 같이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무리에 이 시장은 "올해 시무식과 종무식도 대면행사가 아닌, 라이브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행정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 변화되고 있다"면서 "행정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임실군이 정부 혁신 우수기관에 첫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6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임실군은 지난 3월 큰 특성에 맞는 '2020 임실군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44개 세부 혁신과

제를 설정, 분야별 역점과제 위주로 추진한 혁신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특히 ▲혁신행정 활성화를 강조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농촌협약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혁신 기반조성 ▲전국 최초 임실우 이차보전사업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진이 기관 자율혁신 항목에서 우수사례로 주목 받았다.

또한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 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포용적 행정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참여와 협력 항목의 ▲협업을 통한 무단방치 폐농기계 수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 등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향후 평가 세부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각종 정책 수립 및 발굴 과정 전반에 혁신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비상대비훈련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 표창

순창군이 비상대비훈련 우수기관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최근 전국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행안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며 안전분야 대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기관은 전국 6곳으로 도내는 순창을 포함해 2곳뿐이다.

군은 지난해 집중호우와 섬진강 댐 방류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비상대비 태세 훈련이 면제되었음에도 정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실제상황을 고려한 전사전환절차를 숙지하고 도상연습을 통해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해 총무계획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반영하기도 했다.

군 부대 훈련에서도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았다. 관내 군 부대 전주시휘훈련, 대대전술훈련, 호국훈련 등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군 부대와 순창군 CCTV 관제센터 협약을 체결, 각종



순창군이 비상대비훈련 우수기관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대형화재 실제훈련 모습)

훈련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각종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항방작계훈련 등 군부대 각종 훈련 시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빈틈없는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했다.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교통편 지원도 이뤄지며, 부대와 지역사회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올해 섬진강 댐 방류사태 피해는 한편 항방작계훈련 등 군부대 각종 부대에 앞장서 준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황숙주 군수가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임실군이 납부자의 편의 도모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현년도 1월~6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소를 임실군에 두고 있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차량이다.

연납 신청방법은 군청 환경보호과(640-2354)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지리산국립공원, 신축년 해맞이 행사 전면금지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해맞이, 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출을 보기 위해 바래봉 등 고지대에 탐방객들이 운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다.

또한, 해맞이 탐방객 밀집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입산 시간이 기존 오전 4시와 5시를 12월 31일은 오전 5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오전 7시로 늦춰진다.

심음식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친 국민들과 새해맞이 행사를 못해 아쉽지만, 국립공원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일출 영상을 제공한다"며,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맞이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보건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저출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진단 검사비를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남원시 주소를 가진 부부 중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인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이며 2021년은 50쌍까지이며, 전국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이며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을 지원한다.

검사항목은 기초검사, 호르몬 검사, 경관적액통과검사, 난관 조영술, 정액검사 등이며 난임 진단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기한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2021년 검사지에 한하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갖춰 보건소 1층 모자상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063-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